

# 최근 걸프지역의 경제동향

## - 석유협회 조사과 -

이 자료는 일본의 순간석유정책('96. 4. 5)에서 걸프국의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UAE, 오만 등 6개국에 대한 경제 동향부문을 발췌하여 옮긴 것이다.

19 96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및 아시아제국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 경제성장률은 1995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개도국별로 보면 선진국(21개국)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EU각국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특히 독일, 프랑스는 1995년부터 침체가 계속 이어져 1996년 경제성장률은 연초부터 줄곧 하향수정되고 있다. 여타 선진국도 1996년은 1995년 실적을 약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선진국 전체의 1996년 경제성장률은 작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도국(41개국)을 비롯한 아시아각국의 성장률은 작년에 비해 약간 떨어질 전망이다. 중남미에서는 1994년말의 통화위기로 1995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이 1996년은 플러스로 전환되고 브라질, 칠레는 높은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아프리카제국은 국별로 각각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3~5%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OPEC의

입장은 비OPEC국가의 북해유전 증산으로 계속 어려울 듯하다. 세계원유수요는 아시아의 고도성장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북해 등 비OPEC국가의 증산이 수요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어 OPEC은 금년 6월까지 거의 3년에 걸쳐 부득이하게 생산상한(2,452만b/d)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현재 OPEC회원국들의 재정난이 지속된다면 OPEC회원국간 결속이 약해질 것은 당연하다.

북해유전은 세계수요의 8~9% 정도를 생산하지만 이 지역의 대폭적인 생산량증가는 OPEC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은 110만b/d의 세계원유수요 증가분 대부분을 비OPEC산유국이 흡수했는데 그 40% 정도를 북해유전이 커버했다.

유럽의 석유메이저는 최근 수년간 *Restructuring*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왔다.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 손해보는 쪽은 OPEC이기 때문에 OPEC은 생산능력을 500만b/d 밑돌게 생산해 수급조정역할로 밖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 북해의 증산으로 인한 석유가격의 저가안정은 중동제국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앞으로 대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지역의 석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북해지역의 생산증가를 가능한 한 장기화시켜 메이저가 OPEC의 내부붕괴를 기다릴지, 아니면 21세기를 대비해 OPEC과 협력을 모색할 지 서방측도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있다.

대부분의 중동산유국은 왕족국가이기 때문에 석유회사로부터 은행에 이르기까지 국영기업이 많아 Oil Money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 유일한 단서가 되는 잉글랜드은행 등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90년말 중동지역 산유국의 해외자산은 약 6,663억달러였다. 그러나, 이것은 확인가능한 은행예금액, 증권, 부동산 등의 자산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이것의 약 3배인 2조달러라는 견해도 있다.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침공을 받을 당시 해외자산이 1,200억달러였으나, 걸프전 후 300억달러로 격감했다」고 한다. 그래서, 석유생산능력의 회복 등 전후 경제재건을 위한 자금조달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1. OPEC제국의 석유수출收入 동향

석유관계전문지 Oil Strategy誌에 따르면 '95년의 OPEC 12개회원국의 석유수출收入은 '94년에 비해 13.2% 늘어나 1,414억달러이다. 그 가운데 특히 증가가 두드러진 국가는 베네수엘라, 카타르, 알제리 3개국이다. 카타르의 收入은 전년대비 19.8% 증가해 30억달러가 되었다. 그러나, 수출은 10% 증가에 그쳤다.

베네수엘라는 OPEC의 생산상한을 항상 위반하는데 작년 收入은 '94년 대비 18.2% 증가한 130억달러였다.

알제리의 收入은 6.5% 증가해 71억달러. 이것은 원유가격의 앙등과 6.5%의 수출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또 OPEC 최대산유국인 사우디의 收入은 13.1% 증가한 480억달러이다. 그러나, 이들 收入증가의 원인은 생산량증가가 아니라 원유가격의 인상이기 때문에 각 산유국의 시장세어는 변화가 없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社의 최근 추정 수치는 <표-1>과 같다.

GCC(걸프협력기구)제국의 석유수출입('95년)과 재정적자에 대해 Arab Oil & Gas誌의 최근호는 <표-2>와 같이 신고 있다.

<표-1> OPEC각국의 석유수출收入

(단위 : 억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사우디아라비아	461	475	500	424	415	463
이란	162	135	152	135	130	145
이라크	100	0	3	3	3	3
UAE	171	167	163	140	134	145
쿠웨이트	60	6	61	44	102	115
카타르	29	25	26	24	22	25
나이지리아	144	126	124	110	105	115
리비아	109	102	96	77	1	83
알제리	101	88	82	70	64	71
가봉	20	16	18	16	16	19
베네수엘라	144	135	126	111	112	133
에콰도르	15	13	14	-	-	-
인도네시아	79	71	60	50	43	44
합계	1,595	1,363	1,426	1,254	1,218	1,360

<주> 에콰도르는 '92년말 OPEC탈퇴

〈표-2〉 GCC제국의 석유수출收入과 재정적자

(단위 : 억달러)

	석유수출收入		재정적자	
	1994	1995	1994	1995
사우디아라비아	423	478	107	40
쿠웨이트	104	116	50	45
UAE	131	146	2	3
오만	35	39	8	8
카타르	25	27	7	10
바레인	11	12	2	3
합계	729	818	176	109

## 2. 주요산유국의 경제동향

### (1)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지난 1월 세출액 400억달러의 '96년 예산을 발표했다. 최근 계속되는 세출삭감 조치는 보류했지만 세입액의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적자는 49억 3,000만달러로 전년대비 약 20% 늘었다. 사우디에서는 '94, '95년 예산편성시 대폭적인 세출삭감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국내 석유류가격을 2배로 인상하는 등 歳入을 확대. 100억달러를 넘던 재정적자를 삭감해 '95년예산에서는 40억달러까지 축소되었다.

'96년에 석유收入의 증가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에 대해 사우디 당국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외교소식통은

「세출억제조치가 더이상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긴급히 긴축재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세입을 억제할 수 밖에 없고 의도적으로 석유收入을 낮게 추정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걸프제국 경제소식통에 따르면 금년 예산은 세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배럴당 유가가 실제보다 2달러정도 낮은 14달러전후로 계산되어 있어, 금년중에 수지균형을 달성하려는 사우디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세입은 전년보다 35억리얌(9억달러)이나 줄어 재정적자는 185억리얌(49억달러)에 달했다.

'96년(1월~12월) 예산은 기본적으로 전년과 동일한 방침이래 5개년 계획에 맞추었다. 收入예산은 전년대비 2.6% 감소한 1,315억리얌로 지출예산은 전년수준인 1,500억리얌이었다. 그 결과 수지균형면에서 전년대비 적자폭은 23% 확대되어 185억리얌(49억달러), 이 적자의 일부는 정부개발국채의 발행으로 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우디정부는 작년의 예산책정때 IMF 권고를 받아

〈표-3〉 사우디의 수지예산

(단위 : 억리얌)

	1994	1995	1996
收入	1,200 (840)	1,350 (900)	1,315 (추정)
支出	1,530	1,500	1,500
밸런스(재정적자)	▲ 330	▲ 150	▲ 185

〈주〉 괄호안은 석유

〈표-4〉 사우디의 財政收支推移

(단위 : 10억SR)

	1994				1995				1996		1997	
	예산		실적		예산		전망		전망		전망	
歳入	120%		129%		135%		146%		145%		149%	
石油	84	72	96	74	90	67	101	69	99	68	102	68
非石油	36	28	33	26	45	33	45	31	46	32	47	32
支出	153		171		145		169		179		189	
財政收支	▲ 33		▲ 42		▲ 10		▲ 23		▲ 35		▲ 40	

〈자료〉 '95년 IMF 연차보고서

들어 공공요금의 대폭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긴축예산을 책정했다. '95년 1월 이후 휘발유가격은 1.8배, 경유는 3배로 인상하고 정부보조금 지출을 중단했는데, 이 가격제도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96년 예산중 석유收入, 예상원유가격은 공표되지 않았다. 사우디정부는 종래 예산편성시 원유가격을 높게 예상했었는데 '95년수준인 14\$/B 추정된다.

MEED誌의 분석으로는 세입의 약 72% 정도(251억 8,500만달러)를 원유수입으로 조달할 전망이다. 원유가격 14\$/B, 생산코스트 2.5\$/B, 수출량 600만b/d로 추정하고 있다.

IMF에 의하면 원유가격이 1\$/B상승하면 원유수출收入은 27억\$/년 증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원유가격이 20달러를 넘으면 거의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데 '96년은 IMF가 원유가격을 전년대비 6.9%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 등으로 볼 때 수지가 균형을 이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예산의 특징은 작년의 세출규모수준으로 지출이 계속 억제된다는 점, 그리고 교육, 훈련, 운수, 통신, 공공서비스, 물 부문에 대한 지출이 강화되었다는 점 등이다. 한편, 공업, 농업, 상업 등 특정분야의 개발기금은 58억 8,800만리얌로 5억리얌 확대되었다.

작년에 본격적으로 재정개혁을 단행해 공공요금인상, 보조금 감축에 착수했으나, 금년은 계속되는 공공요금 인상 등 세입확대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원유가격하락이 예상되어 국내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은 어려운 해가 될 듯하다.

사우디재정의 경직화는 도시와 지방과의 개발격차 해소 지연과 직결된다. 이것이 지방의 반발을 사 심각한 정치위기로 발전할 경우, 걸프지역 왕정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채무변제가 사우디재정 재건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원유가격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데는 對이라크 경제제재해제 등 불안요소가 많다. 또, 항상 위협적인 이라크와 이란에

대한 경계를 위해 예산의 약 30%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사우디에서는 이슬람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공개참수형집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처형이 늘고 있는 배경에는 치안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 석유가격하락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보조금 감축이 실시되는 등 전반적인 국민생활이 궁핍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 (2)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풍부한 Oil Money를 해외에서 운용, 금융입국을 목표로 국가收入 10%를 차세대준비금으로 축적해 왔는데, 국내외 자산총액은 1,000억달러에 달해 세계적인 고소득국·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했지만 이라크의 침공으로 경제적타격을 입어 경제제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라크군에 의해 732개 유정이 파괴되어 쿠웨이트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피해유정이 예상보다도 빨리 복구되어 석유생산은 전쟁전 수준인 200만b/d까지 회복되었다. 현재 경제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쿠웨이트는 전통적으로 비동맹노선을 취하면서 동시에 아랍제국, 특히 사우디 및 기타 걸프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풍부한 석유 및 투자수입을 배경으로 아랍·이슬람 세계 및 제 3세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아랍경제개발쿠웨이트기금(KFAEP)을 중심으로 대외원조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91년 10월까지 동기기금을 통해 총액 약 60억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아랍, 아시아제국(대상국 65개국)에

〈표-5〉 쿠웨이트 수지예산

(단위 : 100만디나르)

	1995/96	1994/95	증감(%)
수입	2,910	2,637	10.3
수입중 석유	2,490	2,235	11.4
지출	4,230	4,140	2.2

공여했다. 또, 이라크침공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입은 주변국에 대해서도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결프전후 경제재건 비용부담등에 따른 재정악화로 경제규모는 이전에 비해 축소경향에 있다. 석유收入 회복에 따라 적자는 서서히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 쿠웨이트투자청(KIA)은 '91년 12월에 처음으로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55억달러의 대규모차관을 도입하고, 또 국내에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등 경제재건에 힘쓰고 있다.

'95년 7월~'96년 6월의 지출예산은 전체규모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42.3억디나르이고 收入예산은 10.3% 증가한 29.1억디나르이다. 예산에서는 적자폭 12%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94년 GDP의 18%에 상당한다. 석유收入은 24.9억디나르(약 83억\$)로 收入의 86%('95년은 85%)를 차지하고 있다. 전제가 되는 원유가격은 13달러, 원유생산량은 200만 b/d이다. 또 '94년 收入실적중 석유收入은 예산보다도 24% 많고 비석유收入은 예산보다도 31%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96년~'97년 예산이 2000년까지 적자를 제로로 끌어내린다는 기본 골격으로 '96년 2월 내각에서 승인되었다. 또, '95년 실적은 원유가격이 15.1\$/B로 예상보다 2달러 높았다.

쿠웨이트의 해외자산은 '90년 8월 이라크군 침공이 전에는 1,115억달러였는데 '93년에는 561억달러로 감소했다. '95년말 현재 462억달러로 최근 2년간 약 100억달러, 또 '96년('96년 7월~'97년 6월)에는 '91년에 차관으로 들여온 자금의 변제를 위해 187억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결프전 후 쿠웨이트경제의 침체배경에는 인구감소에 따라 국내경제활동 인구가 축소되었다는 점도 있다.

쿠웨이트는 전통적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라크침공전에 인구 210만명 중 약 70%가 외국인이었으나 현재는 인구 183만중 약

63%가 외국인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쿠웨이트인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적정비율을 도모하고 있다.

쿠웨이트의 농업어업자원청 副장관에 따르면「석유收入에 의존하면 무엇이든지 수입할 수 있다. 식료품도 상당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왔다. 그러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업생산력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수자원이 빈약한 쿠웨이트에서 농업발전은 한계가 있지만 식료품의 자급률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근, 정부는 양의 양육농가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육체노동을 외국인에게 전부 맡겨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쿠웨이트인 농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취미로 양을 기르는 사람은 많아 이러한 사람들을 지원해 본격적인 축산업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쿠웨이트인은 양고기를 상당히 좋아하지만 자급률은 겨우 12%에 지나지 않는다.

### (3) 이란

이란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란의 인구는 현재 약 6,000만명. 인구증가율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의 난민들을 더하면 3.9%로 증가하여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2007년에는 인구가 1억을 돌파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란정부는 '95년 3월부터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5년간 730억달러의 석유收入을 전망하고 있다(146억달러/년). 라프산자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96년(3월 21일부터 1년간)예산안에서는 석유收入은 예상원유가격 15.5\$/B로 할 때 160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LPG, 콘덴세이트 포함). 收入예산 전체로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311억달러, 그중 석유收入은 51.5%, 稅收는 19.6%, 기타 28.9%이다. 한편, 지출예산에서 경상지출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180억달

〈표-6〉 1996/97년도 예산안 기초

(1995년 11월 26일)

[1\$=1,750R으로 환산/일반 예산기준]	
支 出	607,420억 이란리알 (347억달러) 전년비+30.9%
歲 入	543,690억 이란리알 (311억달러) 전년비+28.5%
歲入중 石油	280,000억 이란리알 (160억달러) 구성비 51.5%
稅收	구성비 19.6%
기타	구성비 28.9%
예상石油輸出量(平均)	283만b/d (콘덴세이트 LPG포함)
예상原油價格	1995년 15.00\$/B 1996년 15.50\$/B
[石油收入(試算) 原油單價 17\$ 原油輸出 260만b/d일때 152억달러 原油單價 15\$ 原油輸出 260만b/d일때 142억달러]	

러이고 석유제품輸入은 전년대비 28% 축소, 또 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130억달러가 할당되어 있다.

라프산자니 대통령은 예산계획에 대해 세출은 '96년에도 계속 제2차 5개년 계획에 맞추었고 특히 예산 편성에서는

- ① 사회의 약소층을 지원해 불평등 시정, 사회주의 실현
- ② 일반 세출 삭감으로 균형예산 달성
- ③ 정부의 은행차입 '제로' 유지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예산계획국장장은「리알시세안정과 인플레이션제가 정부의 주요정책이다. 리알은 '96년에도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석유수입은 159억9,000만달러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유가 250~270만 b/d 수출 되어야 한다. OPEC의 원유생산쿼터가 360만b/d인 현상황에서 국내소비분을 고려하면 이란 정부는 수출비율을 상당히 높게 추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대외채무는 '95년 8월말 현재 234억달러, 장기채무가 201억달러, 단기채무가 33억달러이다. '95년말에 처음으로 원금상환을 개시했다. 향후 '90년대

는 석유수입의 약 25%, 2000년 이후는 20%를 각각 변제로 충당할 예정이다.

테헤란시민의 생활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최근 1년동안 인플레이는 100%를 넘었고 리알의 가치는 70% 하락했다. 인구는 과거 16년간 70%가 늘어 6,000만 명이 넘는다. 외화수입의 약 60%를 석유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원유가격의 하락과 수출증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96년은 무기구입액을 5억달러로 축소했다. 레바논을 무대로 활동하는 이슬람원리주의 파 헤즈볼라(신의 길)에 대한 지원도 대폭 축소했다. 외화사정악화로 일반수입액은 전년의 68%로 제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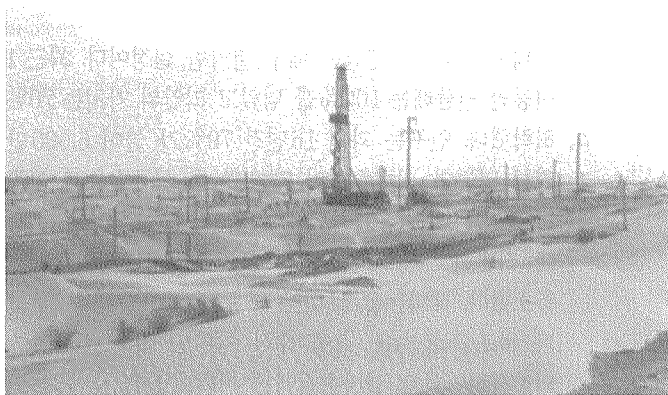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등 이란 봉쇄정책을 강화했다. 이란경제가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할 방침이다.

미국이 강경자세를 취하는 이유중 하나는 작년 6월에 실시한 대이란 석유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약속한 G7제국(러시아, 중국 제외)이 이란과 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수조치를 강력히 지지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엘살바도르 등인데 이란과는 경제이해관계가 별로 없다. 이번 미국제안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다. 이란은 더마트법안을「상징적인 정치활동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은 경미하다」라며 가볍게 넘기고 있다.

#### (4) 이라크

'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후 유엔은 UN결의 986호를 통과시켜 이라크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했다. 당연히 국민생활은 파탄해져 식료,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국민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가운데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은 '95년 10월 대통령 신임투표에서 99.4% 투표율, 99.9%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원유수출재개교섭 동기와 최근의 경제관련 동향은 다음과 같다.

① 원유수출 재개시, 식료·의약품부족 해소

② UN의 승인하에 요르단에만 원유 5만b/d, 제품(주로 중유) 2.5만b/d를 국제가격의 반값으로 팔 수 있게 해 연간 약 2.5억달러의 외화수입을 용인하고 있는데, 최근 요르단과 사우디의 우호관계 회복으로 사우디가 이라크를 대신해 원유를 공급하게 되면 이라크로서는 외화收入이 끊길 우려가 있어 급히 수출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③ 이라크 정부는 '96년의 재정정책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긴축재정, 이라크 통화 디나르의 신용회복(걸프위기직전인 '89년에는 1\$=0.3디나르)이다. 자유환율로 한 때 이라크디나르 2,650까지 떨어졌으나, 이번 수출재개교섭으로 ID가 1,050까지 올라가고 쌀 가격도 1,000ID/kg에서 450ID/kg으로 사탕은 1,400ID/kg에서 1,000ID/kg으로 내리는 등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정부는 휘발유, 등유, LPG의 소매가격은 대폭 올렸다. 이 조치는 자유환율로 1\$=ID 2,900까지 떨어진 ID의 통화발행량을 줄여 ID통화의 가격을 ID100으로 절상하기 위해서이다. 휘발유가격은 ID 0.2/l에서 ID 1.5, 등유는 ID 0.05/l에서 ID

0.5/l로 했다.

④ 이라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후세인의 인기가 높은 것은 국내적으로 식량자급에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어 향후 수년간 자급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5년이상 계속된 유엔의 對이라크 경제제재 목표가 후세인정권 타도라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그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석유수출수입이 국가재정의 기초인 산유국경제에 석유금수조치는 극히 중대한 때문에 같은 이슬람국가의 원조가 있더라도 이라크국민의 생활은 한계상황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더 이상의 제재는 이라크국민을 더욱 피폐하게 할 뿐이다.

## (5) UAE

UAE는 온건한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국내문제로 고용기회 확대, 외국인 노동자감소 등이 있다.

'95년은 원유가격의 소폭 회복과 함께 건설, 산업, 운수, 창고,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실질 플러스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탈석유 의존정책을 추진했다. UAE의 무역은 두바이(서아시아, CIS, 남아프리카 등지로 향하는 물류요충지)의 왕성한 교역으로 '95년은 6%정도 증가되었다.

UAE 중앙은행과 UAE 계획성이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UAE의 석유수출수입은 '94년의 118억달러에서 '95년에는 128억달러로 8.5% 증가했다. 이것은 주로 아부다비 원유의 수출가격이 1.3\$/B 상승한 것과 국내총생산(GDP)이 '95년대비 2.3% 성장해 371억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95년의 재정지출입실적(잠정)에 따르면 '95년 중에 적자가 2.9억달러로 나타나 준 것처럼 보이지만 원유가격상승과 예년 수준의 정부지출로 상당한 흑자를 나타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UAE의 '95년 예산은 지출이 48.9억달러, 세입이

46억달러로 2.9억달러 적자였다. '96년 예산은 未定이지만 지출은 '95년의 지출총할당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출액으로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IMF는 UAE가 2000년까지 적자예산이 매년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강력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각종 정부보조금 삭감, 비생산분야의 합리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대규모 소비세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UAE는 중장기적으로 수출수입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생산능력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석유수출수입은 '94년 117억달러, '95년 126억달러, 2000년에 153억달러, 가스수출수입은 '94년 14억달러, '95년 18억달러, 2000년에 23억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UAE정부는 소득세도입, 전력, 수도, 농민보조금 지출의 지속적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IMF는 현행 정부 재정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거액의 적자가 향후 5년간 계속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UAE의 산업, 사회구조는 상당히 특이하다. 산업은 기본적으로 석유산업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UAE 노동인구의 상당부분은 파키스탄이나 인도등으로부터 온 노동자들이다. 대략 200만명인 UAE 인구중, UAE 국민은 40만명 전후에 지나지 않는다.

## (6) 오만

오만은 중동국가와 우호관계를 맺고 국제감각도 뛰어나 오랫동안 걸프 6개국의 조정역할을 해왔다.

확인원유매장량 43억배럴, 가채년수 17년인 지적되는 오만의 긴급과제는 석유산업을 대신하는 산업육성과 산업다각화이다.

정부의 최대과제는 석유중심산업구조의 극복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법, 제도정비 그리고 자금조달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민의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교육의 충실, 능력을 살리는 기회의 제공, 소비

〈표-7〉 오만정부의 5개년계획 수치

(단위 : 100만리얄)

	1996~2000년	1991~1995년	동실적
원유생산량(1,000b/d)	880	682	778
예상원유가격(\$/B)	15.0	20.0	16.5
총수입	10,092	8,571	8,614
총수입중 원유수입	7,453	6,586	6,504
총지출	10,630	9,450	10,861
총지출중 경상지출	8,696	7,214	8,594
투자지출	1,854	2,107	2,132
수지	△ 538	△ 879	△ 2,247

〈표-8〉 산유국의 예산상정 원유가격

(단위 : \$/B)

	1996	1995	비고
사우디아라비아	n. a.	14.00	
쿠웨이트	13.00	12.00	* '96~2000
이란	15.50	15.00	5년계획
오만	15.00	20.00	** '91~'95
인도네시아	16.50	16.50	
알제리	15.50	16.00	

〈주〉 각국의 원유수출가격 수준은 對OPEC바스켓 가격대비.

사우디 : -1\$/B, 이란 : -1\$/B,

쿠웨이트 : -2\$/B, 인도네시아 : +1\$/B

에만 치우치지 않는 국가건설 등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내용은 「소비에만 치우치지 않는 국가건설」일 것이다. 이것은 수입제품이나 수입기기의 활용에 그치지 않고 각종 기술의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선진국, 기술선진국 실현임에 틀림없다. 즉, 내실을 기하는 개발, 인간의 육성, 경쟁력 있는 기업, 국제적인 의식혁명과 산업혁명이 목표이다.

현재 계획중인 주요산업은 풍부한 가스자원을 이용한 액화석유가스, 비료, 석유화학공장의 건설과 인도와 1,100km의 심해를 연결하는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이다. 이외에도 대형해수, 담수공장이나 발전소건설이 민영화사업으로 계획되어 이들 모두 21세기초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또, 전력, 상하수도가 완비된 공업단지를 조성해 일정한 세금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는 한편, 외국인



에게도 주식보유나 토지취득 등이 서서히 개방되고 있다.

오만정부는 '96~2000년의 5개년계획과 '91~'95년 실적을 발표했다. 그것에 의하면 석유수입은 전체의 74%를 차지 하고 있다('91~'95년 : 76%). 이 계획에서는 예상원유가격이 15\$/B로 작년 계획실적 16.5\$/B를 밑돌고 있다. 또, 원유생산량은 88만b/d가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000년전까지 수지의 균형을 이룬다는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5개년 계획에서 보면 5.38억 오만리얌의 적자가 생긴다는 계획이다.

오만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95년의 석유수출收入은 원유가격상승과 수출량의 증가를 배경으로 '94년의 13.1억 오만리얌(34억달러)에서 13.9억 오만리얌(36억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원유수출량은 '94년 62.7만b/d에서 '95년 71.5만 b/d로 13.9% 증가, 원유수출 FOB가격은 '94년 15.17\$/B에서 '95년 16.39\$/B였다. 오만정부는 '96~2000년의 원유개발계획에서 생산목표를 87.8만b/d로 하고 있다. '95년의 최대수입국은 일본 25.7만b/d이고, 다음으로 한국 14.5만b/d, 중국 8.7만b/d 순이다.

오만도 대부분의 단순노동을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오만인의 고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장기간 노동별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은 어렵다. 산유국이라고는 하나 산업역사가 짧아 국내에 아직 미개발분야가 많아 오만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민의 60%가 15세미만이라는 사실이 미래의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95년의 OPEC 바스켓가격 평균은 16\$/B로 '94년 평균을 1.33\$ 웃돌았다. 예산상의 원유가격을 대략 14~16\$로 상정했기 때문에 원유시세는 이것을 웃돈 셈이 된다.

OPEC제국이 향후 원유생산능력을 확대한다고 해도 막대한 투자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금상 어려움

이 있어 외국자본 유치가 불가피하다.

일본 통상산업성의 한 소식통은 중동산유국의 상류 부문에 대한 외자투입은 사우디, 이란, UAE, 쿠웨이트는 당분간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우선 사우디는 상류부문을 외국자본에 개방한 적이 없다. 아람코사가 기발견유전에 대해 개발순위를 정하고 있고, OPEC 생산 쿼터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령 외국자본이 들어와 신규유전을 발견하더라도 그 생산은 10년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람코는 현재, 각종 코스트절감이 요구되고 있어 재정상 제약이 있다. 확대생산계획 1,000만b/d 유지를 위해서는 신규유전개발이 불가피한데, 후보지로서 아부다비와의 국경에 있는 사이바유전이 있다. 그러나, 이곳은 원격지이기 때문에 인프라정비나 파이프라인 부설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개발은 빨라야 다음 세기가 된다. 이란은 외자와 교섭하고 있는데 조건상 차이가 있다. 합의를 얻어내더라도 의회승인을 얻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란은 유망광구가 있지만 미공개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덜 유망한 광구가 제안되고 있다. 이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다. UAE는 이미 유망광구방출이 끝났고 나머지 광구는 『불모지대』이다. 쿠웨이트는 이란과의 국경근처 광구에 PS계약 형태의 외자도입설이 있는데 이것은 중질원유기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리하다.

이라크는 이미 외자도입차원에서 오만과 협의중이다. 당연히 개발계약은 UN의 제재해제를 전제로 한다.

어쨌든 산유국경제는 선진제국경제동향에 크게 영향받고 있지만 예전처럼 Oil Money가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재정이 풍부한 부국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찾기는 당분간 어려울 듯하다. 앞으로 석유소비국과 산유국, 즉 富國과 貧國이 균형있게 공존공영하는 길을 만들어가야 하겠다. ☘